

Yoo Jaewoong

2018 MFA Fine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12 BFA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23 「Hover around and Disappear」, Gallery Dam, Seoul, Korea
2023 「Movement of Margin」, HNH Gallery, Seoul, Korea
2022 「Zone out」, Gallery Knot, Seoul, Korea
2020 「Space out」, Gallery Joongang202,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24 「Shaping Dialogues」, Bukchon Hanok Cheong, Seoul, Korea
2023 「Young Craft Artists」, Seongdong Foundation for Art, Seoul, Korea
2018 「Geuntae Kim and Jaewoong Yoo」, Gallery Dam, Seoul, Korea

ユ・ジェウン

2018 韓国芸術総合学校 造形芸術科 卒業(ソウル・韓国)
2012 ソウル科学技術大学校 陶磁文化デザイン科 卒業(ソウル・韓国)

個展

2023 「Hover around and Disappear」(ギャラリーダム, ソウル)
2023 「余白の移動」(HNH ギャラリー, ソウル)
2022 「Zone out」(ギャラリーKnot, ソウル)
2020 「Space out」(ギャラリー中央202, テグ)

グループ展

2024 「Shaping Dialogues」(北村韓屋庁, ソウル)
2023 「青年工芸作家」(城東文化財団, ソウル)
2018 「キム・グンテ, ユ・ジェウン」(ギャラリーダム, ソウル)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ユ・ジェウン 個展 / 余白の庭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

丸沼芸術の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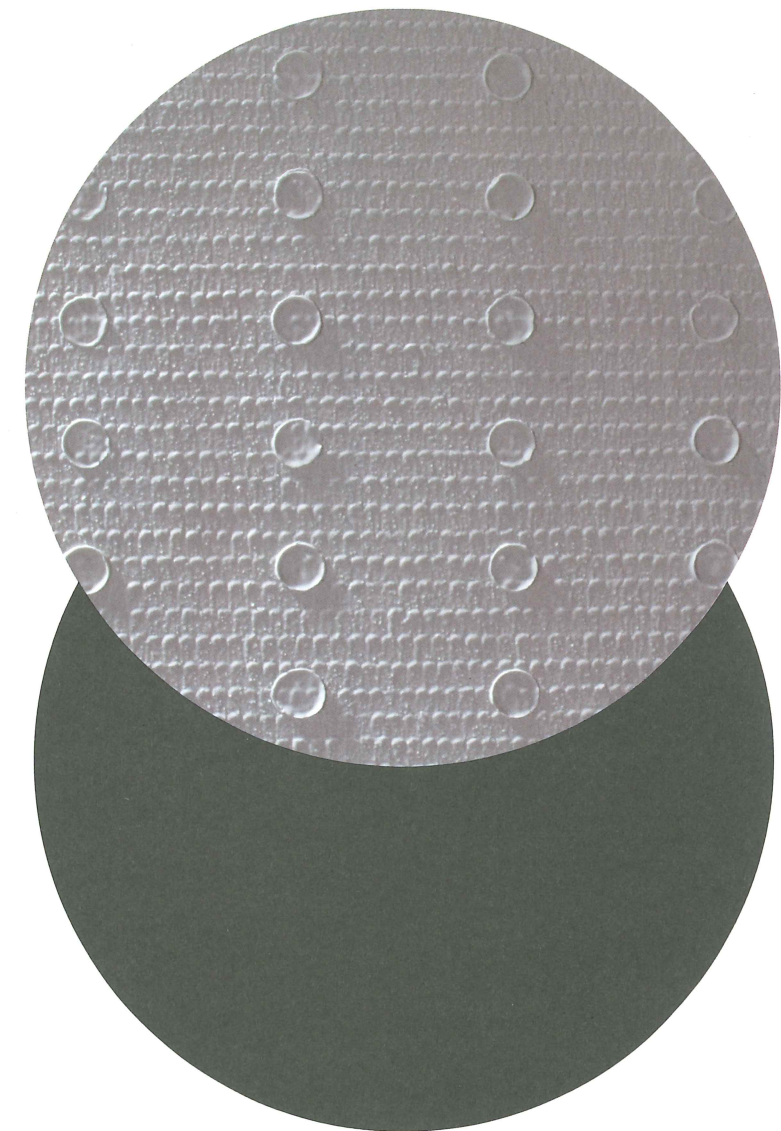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048-456-2533

FAX:048-456-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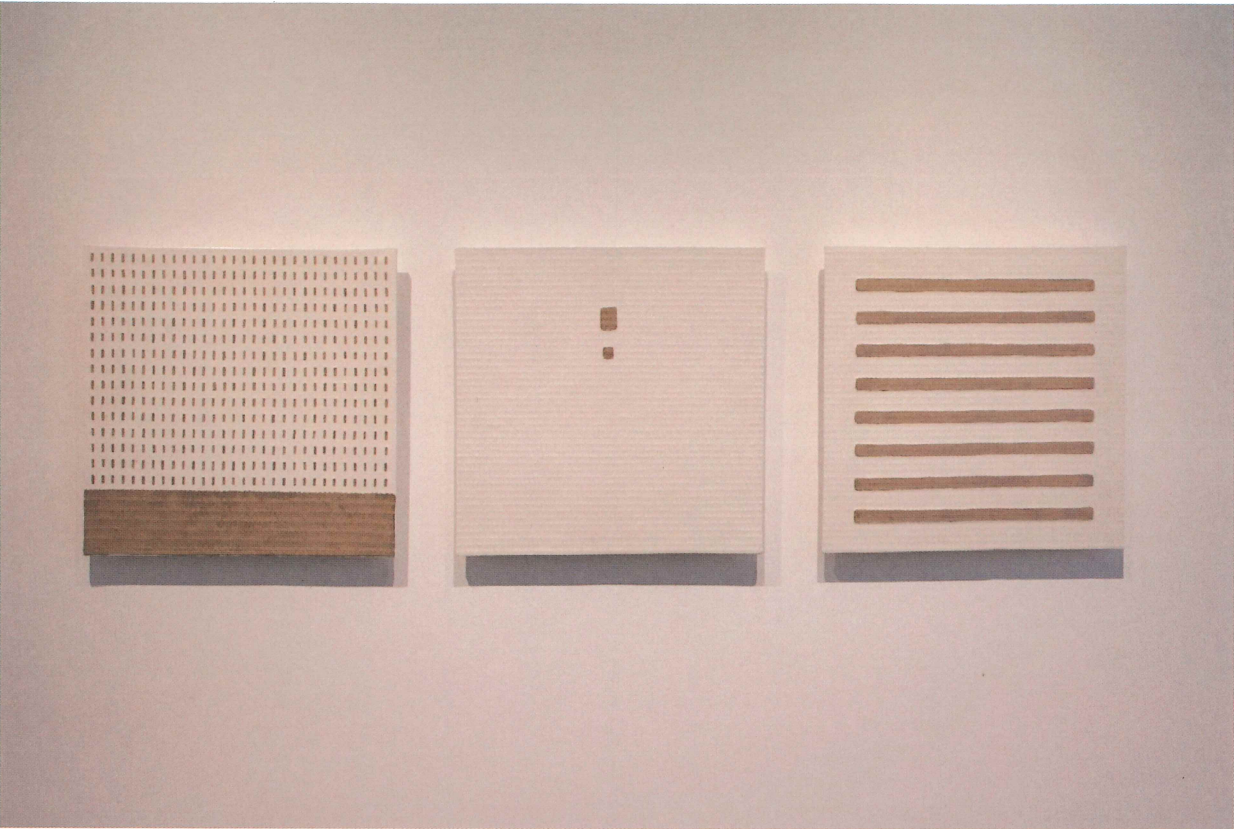
<http://marunuma-artpark.co.jp>



Garden of Margin

Marunuma Art Park
2024 Artist-in-residence Program No.2
Yoo Jaewoong Solo Exhibition

2024年8月23日(金) - 25日(日) 10:00 ~ 17:00



<Space out> Porcelain, each 45 x 45 cm, 2019

余白の庭

「土に触れたとき、表現への渴望が始まる。想いを込めたが、何か腑に落ちない。行き場のないぎこちなさは、脱線の感覚だった。私は工芸の基本である反復プロセスに集中した。足し算ではなく、引き算だ。」今回で17人目の丸沼芸術の森レジデンス作家、ユ・ジェウンの言葉だ。一見すると「最小限の芸術」とも訳されるミニマルアートのようにも見えるその作風は、土を捏ね、彩色されて、焼かれた陶芸作品である。極めて技巧的であり、唯一性と物質性が高く、ミニマルアートとはその考え方も手法も真逆である。しかしながら、工芸の持つ、伝統的な手仕事による反復から、現在の作風に至ったという。

母親は元美術教師でジェウンが生まれてから職を辞したあと、家で画塾を開いた。子供の頃から絵を自由に描く環境が整っていた彼は、そのまま美術制作の道に進むこととなった。大学では陶芸を専攻し人体を模した造形を行った。大学院へ進学し、東洋美術、特に仏教美術に触れ、禅の世界に強く惹かれた。その影響か、徐々に具体的な形や色をイメージしない造形へと移行し、さらにその深度を深めることになる。

ジェウンが影響を受けたアーティストの一人に、同じ韓国出身である白南準（ナムジュンパイク）がいる。一般的には、「ビデオアートの父」として世界的に有名であるが、仏教に造詣の深かった白南準は、仏教の縁起や思想や現代のカルマが来世を引き起こすと言う輪廻の思想をサイバネティックスとして捉えた。サイバネティックスというのは「操舵」と訳され、船を操ることのようにあらかじめ決められた目標に直線的に、最適コースで向かうのではなく、行きすぎたり戻ったりしながら目標に進んでゆくことだと言われている。

土で絵を描く。点や線を描く。技巧的な失敗を受け入れながら最終的に陶芸の持っているプロセスに委ねることにより色、形、質が統合される。これは表現から自然へ向かう陶芸の宿命だとも言える。今回の展示タイトルは「余白の庭」である。これは、まさに作家の自我というマテリアルが技巧によって消え去る空間の提示だと思われる。目の前にある焼かれた土との語らいは、人間の持つ質量への情景とともに血のかよった静寂へと誘ってくれることだろう。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 博

여백의 정원

“흙을 만졌을때 표현의 갈망이 시작된다. 마음을 담아 보았지만 뭔가 납득이 가지않는다. 갈곳이 없는 어색함은 탈선과 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공예의 기본인 반복적 프로세스에 집중하였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다.” 이번엔 17번째 마루누마 예술의 숲 작가인 유재웅의 말이다. 얼핏보면 ‘최소한의 예술’ 로도 해석되는 미니멀아트 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은 흙을 반죽하고 채색해서 굽는 도예작품이다. 지극히 기교적이며 유일성과 물질성이 높아 미니멀아트와는 그 생각도 기법도 정반대이다. 그러나 공예가 가진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반복으로 부터 현재의 작업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술교사였던 어머니는 유재웅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미술지도를 시작하였다. 어린시절부터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던 그는 그대로 미술제작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도예를 전공하여 인체를 모방하여 조형을 제작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동양미술, 특히 불교미술을 접하고 선(禪)의 세계에 강하게 끌렸다. 그영향인지 점점 구체적인 형태와 색을 보여주지않는 조형으로 이동하게 되고 더욱이 그 심도를 깊게하려고 한다.

유재웅이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 중 한 사람이 같은 한국출신인 백남준이다. 일반적으로는 ‘비디오아트의 아버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불교에 조예가 깊었던 백남준은 불교의 기원, 사상과 현대의 카르마가 내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윤회의 사상을 사이버네틱스로서 포착하였다. 사이버네틱스 라는것은 ‘조타’ 라고 해석되며 배를 조정하는 것 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목표에 직선적인 최적의 코스로 향하는 것이 아닌, 지나치거나 되돌아가면서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한다.

흙으로 그림을 그린다. 점과 선을 그린다. 기교적인 실패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도예가가진 프로세스에 맡김으로써 색, 형, 질이 통합된다. 이것은 표현으로부터 자연으로 향하는 도예의 숙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번의 전시 타이틀은 ‘여백의 정원’ 이다. 이것은 작가의 자아라고 하는 원재료가 기교에 의해 사라져없어지는 공간에대한 제시라고 생각된다. 눈앞에 있는 구워진 흙과의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질량으로의 정경과 함께 피가 감도는 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도쿄조형대학
교수 오하시 히로시



<Space out> Porcelain, each 8.5 x 13.5 x h8 cm, 2023